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Good frida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마태복음 26:36-4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36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7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38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42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44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45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46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 그의 친구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으며, 마리아가 예수님 발아래 기름 부었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쳤습니다. 바울은 이 긴장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다 (요한복음 12:37-40)." 산헤드린이 그를 죽이려 음모를 꾸미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 결심하였고,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21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21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21)". 이제 우리의 믿음이 심판대에 오를 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끔찍함을 드러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이기심, 부주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함. 예수님을 고통 받으셨습니다. "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a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요한복음 12:27-28a)".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16)", "30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13)".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32)" 십자가는 우리를 이끕니다. 강요된 힘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에 저절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끌려짐으로 우리도 그 완전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이끌림 받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이상하고 공격적이며 우스꽝스럽다고 느끼십니까? 이상한 현상들입니다. 어둠이 땅에 깔리고, 성전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지진이 바위들을 쪼개고,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살렘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자만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확증하는 말씀이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21)"*. 이 말씀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선포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죄의 비참함 기억하고 우리의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냅니다. 우리는 말씀에 둘 중에 하나로 반응합니다. 손을 하나님께 치켜들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어이없어 하거나 이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2:21)"*. 십자가는 우리의 자만심과 자기 충만을 허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습니다. 사탄과 세상을 향한 심판과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승리.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